

지역 소식

후기 성도 다자녀 가정을 찾아서 ③

우리, 가족

“나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모세서 2:27~28)



행복을 지키는 독수리 5형제 박삼곤 형제 가족(수원 스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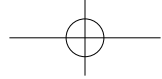
“아들 딸 구분 말고 한 명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유행하던 시절, 네 아들을 가진 박삼곤 형제 부부를 별종 취급하는 주위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해란 자매가 막내 딸을 임신했을 때는 의사마저도 아들 넷이 있으면서 왜 또 낳으려 하는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더 큰 걸림돌은 따로 있었다. 이해란 자매의 몸에 종양이 생긴 것이다. 증상이 가볍긴 했지만 임신 중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의사는 치료를 미루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하자고 권했다. 당시 박삼곤 형제 부부가 살고 있던 지역의 신권 지도자도 의사의 권유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사로서도,

스테이크 회장으로서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조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해란 자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엄마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결국 박삼곤 형제 부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다. 의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해란 자매의 마음은 가볍고 평온했다. 이해란 자매는 그것이 바로 “성신의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그 후 드디어 막내 딸 새봄이가 태어났다. 이해란 자매는 종양이 악성으로 바뀌어 암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했을 뻔한 막내 동생의 탄생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장남 박지형 형제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께 자랑을 했다. 박지형 형제 받은 축하 분위기에 힘써였고, 친구들은 만화 주제가인 ‘독수리 5형제’를 부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무적의 독수리 5형제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처럼 박삼곤 형제 가족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삼곤 형제와 이해란 자매는 가지가 많아 바람이 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웃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박삼곤 형제 가족의 가훈은 ‘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이다. 자녀들의 의견을 늘 존중하는 부모지만 교회 모임이라면 설령 그것이 단순한 활동 모임이라고 해도 빠지는 것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 현재 다섯 명의 자녀 중 두 명이 선교 사업을 다녀왔고, 한 명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남인 박지형 형제는 최근에 결혼을 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다. 박삼곤 형제 부부는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자녀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전임 선교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보내오는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영원한 결혼을 한 것처럼 둘째, 셋째 계속해서 성전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더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



**낳고, 키우고, 사랑할 뿐
박상기 형제 가족(서울 영등 스테이크)**

“축복은 축복인데, 현재까진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상기 형제는 솔직히 말한다.
다섯 자녀의 아버지, 게다가 첫째부터
셋째까지 십대인 아버지의 입에서라면
충분히 나올 만 한 말이다. 심지어
올해 여름이면 여섯 째 자녀가 태어날
계획이니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할
터.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박상기
형제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박상기 형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살을 떠는 이유는 많은 자녀를
양육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축복을 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일의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다. 몇
번이나 의견이 엇갈렸던 상대방은
역시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한동안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왔다.
박 형제가 다섯이라고 하자,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자신은 자녀가 넷이고
손자손녀가 둘이라고 말했다. 그 말
한 마디에 분위기가 풀어졌고 이후
협상은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박상기 형제 부부는 자녀들에게
항상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당부한다.
그것이 바로 두 부부가 전해주고 싶은

가치이자,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5남매, 아니 예비
6남매이지만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면 박상기 형제
부부는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특히 형제간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을 품게 된다.
박상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많이 낳겠다 적게 낳겠다 딱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올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

**보물들
박진수 형제 가족(서울 동 스테이크)**



자녀가 많은 것은 신기한 일이다.
교회 회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더욱 그렇다. 5남매를 둔
박진수 형제 가족이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맞냐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식당에서는 서비스로 음식을 더
가져다 주고, 다섯 명이 다 같은 학교를

나왔기에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서비스
음식이나 주위의 인기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더욱 가치 있는 장점들이,
박진수 형제 가정에는 가득하다. “가족
수가 많으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집의 장점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박진수 형제와 박정옥 자매에게
다섯 명의 자녀들은 보물 그 자체이다.
솔한 장점들이 없었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녀들이야
말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경험은 부모에게 소망,
사랑, 인내, 봉사, 절제, 겸손,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구하게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그
경험 뒤에 오는 기쁨은
자녀가 많을수록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훈처럼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박진수 형제
가족,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박진수 형제
가정에는 늘 웃음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간 증과 행복,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졌던 '2010년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SMYC)의 열기가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기쁜 소식이 발표되었다. '2011년 EFY(Especially for Youth)'가 바로 그것이다. SMYC의 모태가 바로 EFY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EFY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모이게 되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희 장로는 2010년 SMYC 마지막 말씀에서 청소년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SMYC가 끝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께서 (SMYC를 다시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윤희 장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가 떠나가라 환호했던 청소년들의 기도와 염원이 선지자에게도 닿았던 것일까. 2011년 EFY는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사실 SMYC가 진행될 때만 해도 2011년에도 또 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였다. 오히려 3년에서 4년마다 SMYC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워낙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는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최윤희 장로가 청소년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도 계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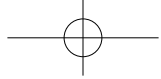
없었던 영감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허락이 떨어졌고, 한국 땅의 청소년들은 2011년에도 뜨거운 간증의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2010년 12월 26일, 2011년 EFY의 첫 번째 준비 모임이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있었다. 최윤희 장로를 비롯하여 EFY 준비 위원회와 운영 위원회로 부름 받은 회원들이 다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2011년 EFY 개최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2011년 EFY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된다. 대회장으로는 지역 칠십인인 오희근 장로가 봉사하게 되었고, 부대회장으로는 지역 칠십인인 배덕수 장로, 그리고

준비 위원장과 운영 위원장에는 각각 김창호 회장 부부와 정태걸 형제 부부가 봉사하게 되었다. 최윤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38년 간 전 세계에서 이어온 EFY를 우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재능을 다해서 2010년보다 더 훌륭한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부모, 지도자, 고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SMYC 이후 선교 사업을 결심한 수원 스테이크의 구영훈 형제와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김현진 자매가 참석해 SMYC가 일으킨 변화에 대해 간증했다. 두 사람의 간증처럼, SMYC가 끝나고 난 뒤 전국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물론 그 중심은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은 보다 많이 간증을 나누었고, 선교 사업을 결심했으며, 자신이 후기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최윤희 장로는 그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어른들도 다같이 변합시다."

2011년 EFY는 벌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YC보다 더욱 훌륭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나선 회원들의 머리 위에 안수의 손길이 없어졌다. 리야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EFY의 준비 과정을 발 빠르게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



서울 스테이크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서는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인 서울 스테이크의 조직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한국 교회는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바야흐로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대의 한국 교회

침례를 받고 며칠 후, 김호직 형제는 쿠모라

언덕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함께 하고 있었다. 모든 모임이 끝난 뒤에 김호직 형제는 맥케이 회장과 약속할 기회를

가졌다. 맥케이 회장은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형제님의 땅에서 형제님의 국민을 위해 커다란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한국에 전해진 그 복음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만개하기 시작했다. 1960년 대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해 가는 시기였다면 70년대는 바야흐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새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복음도 마찬가지였다. 김호직 형제가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 스테이크의 첫 번째 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김창선 형제, 이호남 회장, 제2보좌 최옥환 형제.

마치 어린아이가 돌아눕고, 기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걸음마를 준비하듯 교회도 선교부 시대와 지방부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성장의 준비를 마쳤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간증이 샘솟았으며, 선교 사업의 열기는 나날이 뜨거워졌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1970년에는 769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1971년에는 852명이, 그리고 1973년에는 1,193명이 침례를 받았다. 한국 교회 회원 수는 어느새 8,000명을 넘었다. 대권권 소유자 수는 700여 명이었으며 교회 단위 수도 31개에 이르렀다. 스스로 힘차게 걸을 준비가 끝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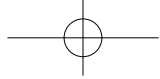
서울 스테이크의 조직

당시 선교부 회장이었던 브라운 회장은 1972년 12월 성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1973년은 한국 선교 사상 유래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브라운 회장의 그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테이크 조직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쯤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스테이크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스테이크의 조직은 한국 교회가 영적인 도약을 맞이함을 의미했다.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스테이크가 곧 시온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스테이크가 조직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에 시온이 세워진다는 의미였다.

1972년 11월 12일에 있었던 서울의 동, 서 지방부 합동 지방부 대회에서는 성도들의 그런 열의가 잘 나타났다. 무려 700여 명이 참석해서 예배당은



—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

물론이고 북도에서도 말씀을 들었다. 당시 서울에는 서울 동 중앙 지방부와 서울 서 중앙 지방부가 조직 되어 있었다.

한국 성도들은 스테이크에 대한 희망을 품은 채 1973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해 봄, 3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한국에 도착했다. 스테이크 조직을 위해서였다. 김볼 회장은 수십 명의 신권 지도자들을 접견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스테이크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찾기 위한 접견은 이를 동안 계속되었다.

1973년 3월 8일 7시 동부 지부(현 동대문 와드)에서 8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 모임이 열렸다. 김볼 회장이 감리한 이 모임에서

그토록 소망하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서울 스테이크, 김볼 회장이 스테이크의 이름을 말하며 그 지지를 물었을 때 800명 회원의 손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갔다. 성도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그리고 웃음이 교차했다.

서울 스테이크의 초대 회장단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에는 이호남 형제, 제1보좌에는 김창선 형제, 제2보좌에는 최옥환 형제. 세 사람 모두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성도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다. 더불어 10개 중 8개의 지부가 와드로 승격되었다. 동부 지부가 제1와드, 서부 지부가 제2와드, 삼청 지부가 제3와드, 청운 지부가 제4와드, 성북 지부가 제5와드, 녹번 지부가 제6와드, 영등포 지부가 제7와드, 성동 지부가 제8와드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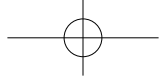
역사적인 조직 이후 서울 스테이크는 한국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나날이 발전해갔다. 한국 교회는 본격적인 스테이크 시대로 넘어갔으며 신앙의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성도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인도에 따라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축복사를 갖게 되었으며, 미래의 한국 교회 발전을 향해 힘찬 걸음마를 하게 되었다. ■



김볼 회장 부부.



서울 스테이크 조직에 지지를 보내는 회원들.



한국 교회 역사 고문으로 부름 받은 서희철 형제

서 희철 형제가 한국 교회 역사 고문으로 부름 받았다. 각 나라별로 새롭게 주어진 이 부름은 해당 지역의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서희철 형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 부름에서 봉사하고 있다.

서희철 형제는 교회가 전 세계로 더욱 더 뻗어나가는 이 시기에 각 나라의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일은 무척 의미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거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2세대, 3세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에서도 교회의 지난 역사를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희철 형제는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을 모아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교회 역사박물관을 세우는 일까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 그래서 후대에 그 자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서희철 형제는 강조한다. 또한 젊은 회원들이 교회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때 교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훌륭한 전통을 세우며, 한국이 아니라 후기 성도로서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희철 형제는 과거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지역 지도자의 연례 교회 역사 기록 제출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하고 훈련할 계획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증하는 서희철 형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통해 이 교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 발전에 회원 모두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 성도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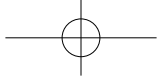
변화의 큰 축복

선 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선교사들과 알고 지낸 구도자 자매님께서 계셨다. 그 자매님께서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복음 토론을 하셨다.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순수했다. 그 자매님과 만날 때 마다 나와 동반자는 아주 행복했고, 자매님께서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침례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자매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셨으며 아직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매님이 침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드렸다. 그때 동반자가 자매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부산 시내의 전경이 보이는 아름답고 조용한, 그리고 영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을만한 곳에서 자매님께 침례 권유를 해보자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곳을 찾아 자매님에게 침례 권유를 했다. 그리고 침례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우리는 자매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많이 걱정했지만, 자매님께서서는 이미 침례를 결심하고 계셨다. 자매님께서서는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셨다.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계셨으며 교회에도 매주 참석하셨다. 나중에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하시길,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물몬경을 읽고 기도면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자매님께서 변화하실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행동하셨으며, 그로 인해 성신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준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

강동희 형제(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복지의 ⁶ 기본원리 ABC

가정 비축 HOME STORAGE

경 전에는 환란의 때를 위해 식량을 비축하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7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모았습니다. 리하이이는 과실과 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코니우스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준비하라는 경고는 계속됩니다. 제일회장단은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기본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약간의 돈을 은행에 저축함으로써 인생의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중 제일회장단 메시지)라고 말해왔습니다.

현세적 및 영적인 가정 비축

제일회장단이 말한 ‘역경’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은 기근을 대비해 곡식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리하이이는 긴 여행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레이코니우스는 임박한 레이맨의 공격 때문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실업, 질병, 경제적 위기, 테러 공격 등은 가정 비축을 하는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영적인 힘을 받는 때, 영감과 계시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위한 영적인 힘을 비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명심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 13~14쪽)

기본 지침

가정 비축에 대해 우리가 받은 지침은 서로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교회 회원들이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하루 식사에 해당하는 양의 일부를 모아 나[갑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 분량의 식품을 모으기 위해 매주 몇 가지 여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한 “물이 오염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식수를 비축”(같은 책)이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주 약간의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적절한 금액이 될 때까지 점차 늘려 재정

예비금을 모으라는”(같은 책)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식품과 물, 재정 예비금의 비축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권고해왔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허용되는 곳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생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밀, 백미, 콩과 같은 식품으로 비축량을 늘려 나[갑니다].”(같은 책) 요셉과 곡식의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얼마나 많은 식량을 모아야 하는가에 대해, 경전에서는 “[요셉이]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창세기 41:4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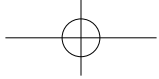
단지 식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님

레이코니우스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때를 모으게 하라는 포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제3니파이 3:13~14 참조) 그는 또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했습니다.(15절) 리하이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실과 꿀,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씨앗도 챙겨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리하이가 행한 첫 번째 일 중의 하나는 바로 “땅을 갈기 시작하고 또 씨앗을 심기 시작”(니파이전서 18:24)한 것이었습니다.

연령과 결혼 여부, 가족 규모,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필요와 자원에 맞는 대로 이 원리를 따르도록 권고받습니다. 신앙과 순종,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적은 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검소하며 절약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비축과 저장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욕망을 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더 계획적이고 더 현명한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선지자의 권고 및 경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 년치 분량의 식량을 비축해 두고……빛을 지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맞게 되는 경제적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권고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비축 식량도 없이 일 년 내내 값아야 할 빛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That Noble Gift—Love at Home,” Church News, May 12, 2001, 7)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1명/해외 5명



김인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



조영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



박우형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흥 와드
서울 선교부



최재원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우상심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서울 선교부



허윤녕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지부
캐나다 에드먼턴
선교부



윤성태 장로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부산 선교부



홍승택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부산 선교부



정현정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정덕진 장로

정영순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대전 선교부

과월호 리아호나 업데이트

과월호 리아호나가 한국 교회 공식 웹사이트(www.lds.or.kr)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03년부터 리아호나를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1964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리아호나를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월호 리아호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이 교회 역사와 신권 지도자의 말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www.lds.or.kr로 접속하여 좌측 '교회 자료 열람실' 중 '잡지'를 클릭하면 리아호나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은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리아호나를 보거나 다운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PDF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 관리 본부에서는 과월호 리아호나 중 빠진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 1964년: 11월, 1월호
- 1965년: 1월, 5월, 6월, 7월, 8월호
- 1966년: 5월, 6월, 11월호
- 1967년: 4월호

위의 리아호나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기사를 모집합니다

SMYC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SMYC를 통해 간증을 얻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 및 청년 성인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간증은 매달 연재되는 'EFY 통신'에 게재될 것입니다. 분량은 A4 반페이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우)133-600
-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